

All Nations Mission Center

President
Rev. Hunn Choi
Dr. Meesaeng Lee Choi

www.anmcusa.org, anmcusa@gmail.com 859-312-2433, 2156
701 Emmett Creek Lane, Lexington, KY 40515 U.S.A
협력기관: Onnuri - OMA - TIMA - CGNTV

Refresh, 심터 · 새롭다
Revitalize!

교회와 선교리더십 회복

LOVE & CARE FOR CROSS-CULTURAL
WORKERS AND PASTORS



선교사·목회자 돌봄과 선교연구
MISSIONARY · PASTOR CARE &
MISSION RESEARCH

올네이션스 선교센터 사명

올네이션스선교센터는 선교의 대위임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타문화권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 차세대/제3문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멤버케어, 한국교회와 선교연구, 리더십 개발과 재교육을 한다. 이 사명은 선교사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교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ANMC 미국

선교사-목회자 돌봄 2018에 참석한 13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자와 사명자로 설수 있도록

ANMC 필리핀

300명 어린이집 원아들의 교실 마련과 직업 훈련 및 재능 교육을 위하여
10월에 시작된 40개의 교실을 짓는 공사를 위하여

ANMC 중동-북아프리카

영적 추수기인 중동 땅에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난민 사역자들의 능력, 순결, 보호, 지혜를 위하여
제자훈련에 연결되는 MBB 들을 보호해주시도록

ANMC 한국

선교센터와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중보기도와 후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비전 나눔 모임이 발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ANMC News

선교사 멤버케어를 통한 선교사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D 선교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2 - 생명에서 열방의 빛으로

(8월호에서 계속)

“그곳에서 다시 또 이 길을 가지 않겠니?”

다시 자신을 선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D 선교사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4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평신도 선교사였던 그는, 신학 공부를 마쳤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공부를 하는 중에도 자신이 섬겼던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을 향한 열정은 그의 마음속에서 식을 줄을 몰랐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를 통해 선교사로서 다시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4년 전, D 선교사가 베다니 집에 머무는 동안에 동생에게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동생은 자신이 특허를 낸 커피 기계로 카페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D 선교사는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신학 공부와 함께 카페 사업, 카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공부를 하면서 사역과 사업을 함께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셨고, 돕는 손길을 보내 주셨다.

D 선교사는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작은 카페에 온 손님들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 냈다. 마음이 상한 자, 아픔이 있는 자,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 카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장소가 되어갔다.”

그는 단골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놀랍게도, 이전에 선교지에서 섬겼던 나라의 사람들과의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곧 그 모임이 부흥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더 많은 무슬림들을 만나기 위한 새로운 장소가 절실히 필요했고, 그 카페를 달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중에 D 선교사는 학교를 졸업했고, 동시에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멈출 수 없었다.

후원

한국

국민은행 : 524901-01-127780, 임혜련

미국

Check : Payable to "ANMC"

701 Emmett Creek Lane, Lexington, KY 40515

동역 후원자들

올네이션스선교센터는 복음주의적이며 초교파적인 비영리 선교단체로,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President

Rev. Hunn Choi

Dr. Meesaeng Lee Choi

President's Council

Rev. Jaehoon Lee

Rev. Yonyong Park

Rev. Misook Kim

Hyekyung Lee

Advisory Council

Dr. Lois Dodds (Heatstream Resources President)

Dr. Laura Gardner (Board Vice Chair, SIL Int'l)

Dr. Ron & Bonnie Koteskey (Go Int'l)

Dr. Rhonda Pruitt (Columbia International Univ.)

Board of Trustees

Inhong Cha & Sungeun Cho

Jaehyung Yoon & Sam Kim

Shinho Choi & Sinae Kang

Sojin Yoo & Misook Yoo

Taeseung David & JooYoung Yoo

Supporter

All Nations UMC

Dongtan Zion KMC

Life in Jesus Church

Onnuri Community Church

OMA-TIM-TIMA-CGN TV

Eunsun Choi & Daniel Lee

Eunsung Choi & Jinjoo Kim

Glovis Alliance Co.

Hoon & Aesook Choi

Hunn & Meesaeng Choi

R. & Grace Chung

Shinho Choi & Sinae Kang

Haekyeong Jeon

Esther Kang

Kyuwook Kang & Jaehee Kim

Duckhyun Hong & Sungryung Kim

Misook Kim

Hyekyung Lee

Ken & Patty Pennington

Peter & Jennifer Sone

Hyaerhun Yim

Taeseung David & Jooyoung Yoo

Bok Hee Youn

그는 더 많은 무슬림들이 '교회'에 간다는 부담과 불편함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를 원했다. 적합한 장소를 찾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세의 절반 금액으로 완벽한 장소를 구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이때부터 더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 그의 교회에서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을 뿐 아니라, 월세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더 나아가, 교회와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D 선교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저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만나기 편한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여러 창업 관련 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서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개인의 재정 자립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현지인들의 힘으로 현지에 교회를 세우는 데 까지 나갈 수 있는 이주민 선교의 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창업 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교회 내의 관련 사역팀에서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일사천리였다.

“선교사의 길에서 목사의 길로, 계속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큰 기쁨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지...”

친구들을 병원에 데려가고, 보호자로 수술 사인을 하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비즈니스를 생각하니,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여 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의 문들을 여신다.”

지난 8월 2일, 새로운 장소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동시에 5년간 함께 했던 T 형제를 보내는 송별식을 가졌다. D 선교사는, 두 달에 한 번, 한달에 한 번 모임에 오던 그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그러한 그가 자신이 돌아가 집을 짓게 되면 방 하나를 중보기도실로 내놓겠다고 하는 말에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러기에 그를 보내는 시간은 송별식이 아닌 파송식이었다.

D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로운 장소가 제 2의, 제 3의 T형제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기쁨의 길 축복의 길인 이 길을 계속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네이션스 기도 제목

1.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하나님의 선교가 멈추지 않고, 선교사들을 주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도록
2. 코로나로 인한 선교사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인식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3. 2020년 한 해 올네이션스선교센터 베다니홈을 방문하실 선교사-목회자-평신도 지도자와 그 가족들이 참된 쉼과 회복을 얻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 되어 나아가도록
4. 협력기관인 온누리교회, OMA, TIMA, CGNTV, 올네이션스연합감리교회 (ANUMC)의 연합 사역을 통해 멤버케어와 선교 연구에 발전이 있도록